

차례상 비용 19만4000원 보름새 1만5000원 올랐다

과일·채소 급등세...추석 다가올수록 더 오를 듯

과일과 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추석 상차림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한국물가협회가 14일 전통신장에서 과일류, 견과류, 나물류 등 추석 제수용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구당 차례상 비용이 19만4540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협회가 보름 전에 조사했던 것(17만9220원)과 비교해 8.5% 오른 것이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태풍 '몬파스'의 영향으로 주산지의 낙과가 많아지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사과(5개)와 배(5개)는 보름 전보다 34.5%나 올라 3만2500원을 기록했다.

나물과 채소류도 산지 작황이 나빠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애호박(1개)은 보름 전보다 49.7% 오른 2500원에, 시금치(400g)와 대파(1kg)는 각각 10.4%, 49.8% 오른 3500원, 4000원에 팔려 차례상 비용 상승을 주도했다.

부세조기(1마리), 북어포(1마리), 동태포(1kg) 등 수산물류는 보름 전에 비해 2.3% 오른 1만8500원에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돼지고기(목삼겹·1kg)와 계란(특란·30개)은 보름 전보다 각각 14%와 17.1% 오르는 등 대부분의 품목이 오름세를 보였다.

제수용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전통신장에서도 차례상 예상 비용은 지난해(17만2000원)보다 17.3%나 올라 20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대형유통업체는 24만1000원보다 1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대부분 농산물이 작황부진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수산유통공사(aT)는 최근 10개 전통신장, 24개 대형유통업체, 3개 온라인몰, 4개 직거래장터별 실질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신장은 20만1000원, 온라인몰과 대형유통업체는 26만9000원, 직거래장터는(다식·강정·조기 제외) 2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올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의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았다"며 "추석이 다가올수록 수요 급증으로 과일, 나물류 등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직거래 장터서 제수용품 싸게 사세요

김용복(왼쪽에서 두번째)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14일 광주시 동구 KT정보센터 광장에 개설한 '한가위 직거래 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장터는 16일까지 개최하며, 각종 제수용품을 시장 가격보다 10~20% 싼 가격에 판매한다.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른다

두달새 7%↑... "인상 성급하다" 비난 거세

이달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 보험료를 또 올리기로 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르코다 음다이렉트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다음달 2.8%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용은 2.3%, 영업용은 1.5%씩 인상한다.

AXA손해보험과 하이카다이렉트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다음달 각각 2.6%, 2.5%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보험사들도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들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4%가량 인상됐으므로 불과 두달 새 보험료가 7% 가까이 인상되는 것. 자동차보험료가 두달 연속 인상되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들은 보험료 추가 인상의 이유로 교통사고 증가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들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손해율은 지난해 80%를 넘어 자동차보험 부분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일, 야채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공공물가가 들쭉거리며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마저 오르면 서민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겨울 손해율이 두달 연속 80%를 넘으면서 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자구 노력 요구와 함께 손해율 추이를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손해율은 봄철 들어 가파르게 떨어졌다.

반면 이번에는 손해율이 고작 한달 80%를 넘자마자 자동차보험료를 즉각 인상한 것이다.

생애첫 주택대출 첫날 달랑 8천

우리銀만 4억7천만원...하나·기업·신한 전무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13일 시작된 가운데 초기 대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자금 수탁 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 등 5곳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 대출 실적을 파악한 결과, 우리은행에서만 첫날에 4억7000만원(8건)의 대출금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밝혔다.

이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1년과 다시 시행된 2005년에는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주택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었어서 이미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계약된 물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무분별 외상은 No 체크카드 사용 증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체크카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은 22조99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조1752억원)보다 42.2% 증가했다.

이는 유동성 문제로 '카드 대란'을 겪은 직후인 2004년 상반기(8530억원)와 비교하면 약 27배에 달한다.

올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건수도 64억5751만건으로 2004년 상반기(2억8824만건)의 22배가 넘는다. 카드 전체 사용액이 2004년 상반기 176조490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61조1461억원으로 약 5배 늘어난 것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신용카드에 직불카드 기능을 결합한 체크카드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가맹점이 많지 않은 직불카드와 달리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인, 적립 혜택 등도 거의 차이가 없다. 체크카드에 예금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외상'을 하라하지 않는다.

'다문화 가족 행복장터'

17일 양동문화센터서 오픈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음식과 차를 맛볼 수 있는 '무지개마을(다문화가족 행복장터)'이 17일 서구 양동시장 상가 2층 '양동문화센터'에서 문을 연다. 무지개마을은 광주시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마련했으며, 아시아 전통음식점과 식재료 판매점, 다문화공방, 전통차집으로 구성됐다.

무지개마을은 결혼이민자 가족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제공되며, 시민들이 다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공간으로도 쓰인다.

매주 토요일 양동시장에서 열리는 '토요경매'와 '시장유랑단' 공연과 때를 맞춰 인근에 인도, 태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이 선보이는 주1회 특별코너도 마련될 예정이다. 양동시장 인근이 지역 유일의 다문화 음식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정부의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양동시장 2층에 건물을 증축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실내장식을 도입한 바 있다.

4%대 정기에금 금리 옛말 은행권, 금리 줄줄이 인하

최고 0.3%포인트 ↓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 들어 정기에금의 금리를 잇달아 내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민수퍼 정기에금(1년 만기)의 금리를 지난주 연3.70%에서 이번 주 연3.60%로 0.10%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의 2년과 3년 만기 정기에금(키위정기에금)의 기본 금리도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이 상품의 기본 금리는 2년 만기가 연 4.0%에서 연 3.9%로, 3년 만기는 연 4.1%에서 연 4.0%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는 연 3.8~3.9%로 지난주와 같다. 기업은행도 15일부터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에, 적금의 금리를 종전보다 0.1~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2년 만기 서민검심통장의 고시금리는 연 4.2%에서 연 4.0%로 인하

할 예정이다. 종전까지 4.7%의 고시금리를 제공하던 3년 만기 서민검심통장의 금리도 연 4.5%로 내려간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바람에 시장금리가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6%포인트 급락했으며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4.03%에서 연 3.83%로 내려갔다.

반면 변동부 대출금리는 이달 초 0.03%포인트가량 오른 이후 추가 조정되지 않았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성 예금증서(CD)가 이달 들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6개월형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03~6.26% 수준이다.

신한금융그룹 이사회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

신한금융그룹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신한금융 이사회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포대결을 벌여 11대 1로 신 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사장의 격중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동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902,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광주 롯데점: 062)221-1037, 광주 현대점: 062)510-7040
 목포 차생원: 061)281-1002, 서울 차생원: 02)730-2983, 부산 차생원: 051)256-7007-8,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763-4 T.222-2902,3973

민속촌(주) 무진주

갈비전문점 민속촌(주)와 보쌈전문점 무진주는 2011년 3월 1일 광주 상무점 개점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본사관리자(경영지원부) 및 영업(써빙), 조리부 경력자와 신입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모집직무	연봉	자격	특별우대조건
본사/경영지원부	인사, 교육, 구매, 총무, 경리, 홍보 마케팅, 주차관리부	면접후 결정	해당분야 경력자(업종불문) 및 초보자는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년제 정규대학교 졸업자 (전공불문)
	점장	연봉 3천만원 이상	외식산업(식당) 근무 경력자	외식산업(식당) 경력자
영업점/경영부서	점장	연봉 2천만원 이상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패밀리 레스토랑 등 업종불문)	(한식, 양식, 일식, 중식, 패밀리 레스토랑, 기타 근무경력 모두 경력 가산점 인정)
	영업장서비직원 아르바이트	연봉 1천 9만원 이상 면접 후 결정	초보자 및 경력자	2년제 이상 대학 외식산업관련학과외식경영학, 호텔조리학, 조리학, 식품영양학 전공학, 호텔경영학, 기타 졸업자
조리부/생산부서	조리관리자(주방장, 부주방장)	연봉 2천 6백만원 이상	조리사자격증 소유자로 외식산업(식당)경력자	해당분야 자격증, 연이증, 수료증 소지자 우대
	친모, 밥모, 육부, 탕냉면, 세척직원	면접 후 결정	초보자 및 경력자	

1차: 서류 접수기간: 2010년 9월15일(수) 17시 까지 • 전형방법: 1차 e-메일로 만점수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연공 및 주특기 소개 필수), 연력서지제, 지원부서 (희망연봉 기재)
 2차: 면접 전형(1차 이메일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영업장 써빙(홀 직원)과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이력서만 접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

문의 및 e-메일 접수: focham@naver.com 문의전화: 011-9766-3392 (이메일 사용법을 모르는 분만 전화로 상담합니다)

돼지갈비 전문점 민속촌(주) 보쌈 즉발 전문점 무진주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73-2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4